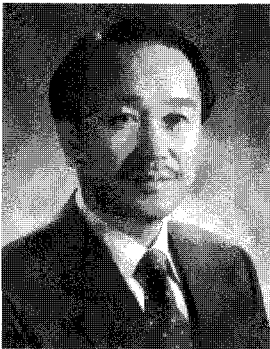


폐기물 재활용장비 전문 대표기업

국내 최대 압축기 생산·납품



◀ 박래준
서흥인테크(주) 대표이사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보편화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 비한다면 초창기 환경과 관련한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선구자적 생각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198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재활용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한 서흥인테크(주)(대표이사 박래준)는 환경설비 분야에서는 시발 업체로 손꼽힌다.

당시만 해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서흥은 우리나라 쓰레기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향후 사업성 평가를 마치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처음 1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가 없는 관계로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보급해 왔으나 서구와는 다른 음식 특성으로 이들 장비들이 활용성이 떨어져 다른 재활용시스템을 검토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검토된 것이 2차 오염이 없는 장비를 선택해 국산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는 처리 후에 2차 오염발생으로 완벽한 처리는 어렵다는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폐기물 및 재활용 압축기였다. 주변에서 나오는 파지, 캔, 비닐 등을 압축하여 이를 재활용하는 설비를 선택하여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국의 제품들이 대형위주라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아 고민하다 국산화를 결심, 2년만에 우리 실정에 맞는 다목적압축기를 선보이게 됐다.

이와 함께 캔 압축기도 개발 상당한 관심과 각광을 받게 되면서 재활용 설비 생산업체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발 제품은 초기 유통업체에 많이 공급했는데 이는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고 서흥이 만든 제품이 상당히 외산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 지난해 10월 열렸던 환경산업전에 참가한 서흥인테크

인정받아 장비를 보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보람이었다.

재활용설비 취급이 처음에는 사업적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까지 서흥의 모든 임직원들을 고무시켰다.

지난 1992년 음식물 탈수 압축기 국내 조립, 1994년 캔압축기 '캔마스타' 제작, 1995년 일본 도다니사의 리필용기 제조기 판매, 1996년 쓰레기 압축기 미니팩터 2000 개발, 다목적 유압 압축기(수직, 수평형) 개발, 1997년 스티로폴 압축기 국내 처음 개발, 1999년 압축기 등 재활용설비 제조공장 등록, 2001년 환경사업부를 분리하여 서흥인테크(주)로 법인설립, 일본

INNOSHIMA 압축포장기 대리점 계약 및 자동압축기 수출계약 등 올들어 본격적인 도약 준비를 하고 있다.

서흥은 파지, 캔, PET병, 비닐, 스티로폴, 일반쓰레기 압축기, 스티로폴 감용기, 파쇄·분쇄기, 분진, 소각재, 톱밥, 금속 브리켓팅, 재활용

선별시스템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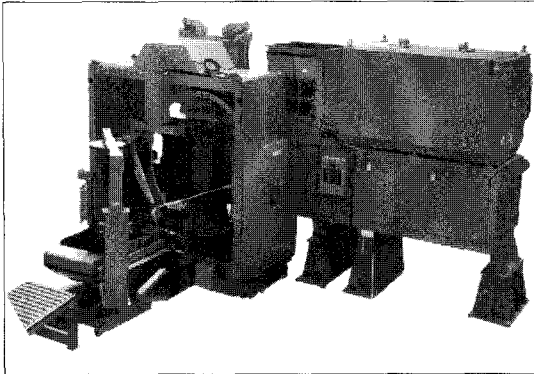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일본 INNOSHIMA사의 폐플라스틱류, 일반쓰레기 및 랩압축기, 독일 WELGER사의 폐비닐 및 박스압축기, 미국 MARATHON사의 폐기물 및 매립지용 쓰레기 압축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기술 이전을 검토중이다.

서흥의 주력제품 중 자동압축결속기는 자동 유도장치에 의해 전자동으로 결속, 성능이 입증된 기계로 빠르고 완벽하게 철사가 꼬여지며, A/S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모터 및 제어펌프, 블록위 쿠션밸브 장착, 강력한 압축력과 유연한 작동, 장시간 사용에도 무리가 없으며, 피스톤의 압력을 분산시켜 정밀 절단되며 기계크기, 압축물 종류에 따라 칼날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스티로폴 압축기는 열을 가하지 않고 강력한 유압식 압축으로 물성변화가 전혀 없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아 백화점, 빌딩 등 지하공간 설치에 적합하다.

50분의 1로 압축 감용하여 저장 및 운반비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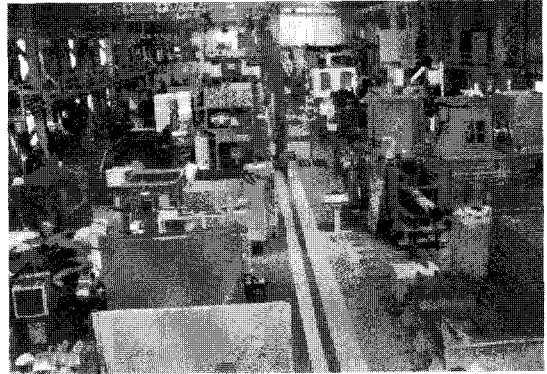


▲ 6면 압축포장기

감효과, 파쇄기 장착으로 연속 투입 가능하고 처리용량을 극대화 시켰다.

미니팩터 2000은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실내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쓰레기, 유리병, 캔까지 다양한 압축, 자동버튼식 작동 및 투입·배출이 간단한 사용자 편리성, 안전장치 및 철저한 사고방지 설계가 돋보인다. 이와함께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6면압축포장기는 폐플라스틱등을 6면압축포장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설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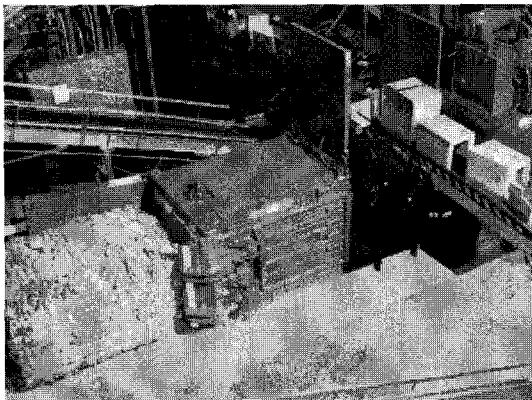
이 설비는 포장기가 회전하면서 랩으로 포장, 설정된 회전수에 따라 4면포장후 2면포장이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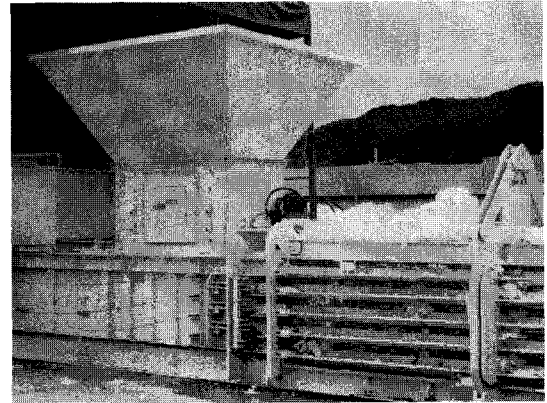
▲ 생산현장 전경

료되면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이다. 또한 신축성과 점착성이 높은 특수 필름을 사용, 한쪽은 묽음끈 역할을 하고 한쪽은 포장을 하는 특수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과 일반 폐기물을 10분의 1로 압축포장하기 때문에 보관장소 및 운송비를 대폭 절감하며 완전 포장으로 쓰레기의 비산 및 오수누출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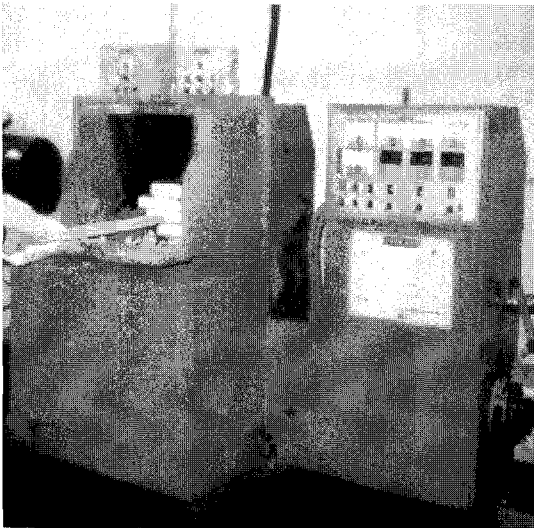
6면압축포장기는 PP밴드, 철선이 필요없고 작업환경 및 주변환경 보전, 매립장 안정화 회수물 등 폐기처리,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포장하여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평형 자동압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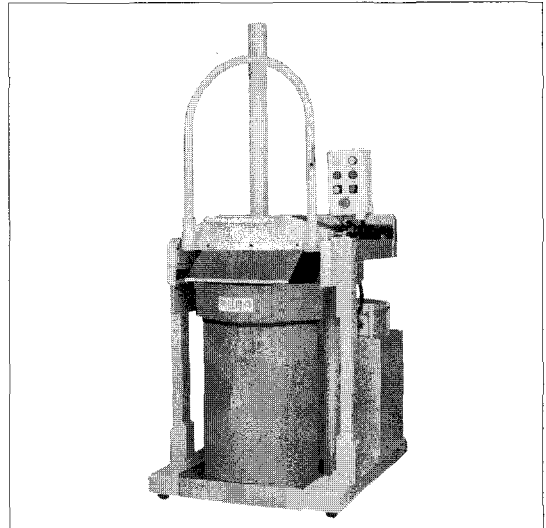
▲ 자동 압축결속기



▲ 소형 쓰레기 압축기

서흥은 국내 처음으로 일본에 대형압축기 납품계약, 미국과 소형쓰레기압축기 상담 등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이 기대되고 있어 매출의 급신장도 예측된다.

앞으로 서흥은 내수부문에서 독점적이던 중 소형 압축기 시장에 가격덤핑 등 경쟁에 대비,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대응과 품질 안정으로 재활용센터 공사 등 관급공사에 적극 참여하여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올해 공장 확장을 계기로 수출의 전기를 마련, 선두 업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서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신생업체들이 과당경쟁 및 덤핑으로 업계 질서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박래준 사장은 "품질 위주의 선의의 경쟁풍토 조성, 재활용 기계업체간 조합 또는 협회의 구성"을 제안, 건전한 경쟁관계의 유지 및 업계 애로사항의 전달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는 동종업계 발전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업



▲ 미니팩터

계 실정을 감안,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에만 주는 각종 지원책을 재활용 설비제조 업체에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사 발주시 엄격한 적격업체 심사로 중소 설비업체는 참여조차 할 수 없어 대기업의 철저한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공사 발주시 전문업체의 콘소시움 구성을 통해 정당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회사의 기본 목표는 최고의 기계를 만들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고객만족 지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뜻하며 품질, 가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서흥은 폐기물 처리장비 대표기업으로 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가는 종합처리시스템의 선두자리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

(鎮)